

국어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구현 양상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국어2』 교과서를
중심으로

엄진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교육과정 및 선행 연구 검토
- III. '사회적 독서' 단원 구성 및 개념 제시 양상
- IV. '사회적 독서' 관련 제재 및 학습 활동 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사회적 독서'라는 용어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독서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읽기 행위를 개인적 의미 구성으로 간주하는 협소한 관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의 측면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독서교육 차원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매체 환경의 변화,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교육 담론의 변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적 독서가 국어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직 해명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독서의 개념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간 진행되어 온 선행 연구를 검토했을 때, '사회적 독서'는 '개인적 독서'와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적 독서가 읽기를 통한 개인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독서는 읽기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읽

기의 ‘목적’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독서는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천경록, 2014: 15)으로 정의된다. 둘째, 독자가 홀로 텍스트를 읽는 개인적 독서와 달리, 사회적 독서는 복수의 독자가 텍스트를 함께 읽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읽기의 ‘방법’이 강조되는 관점에서 사회적 독서는 “구성원들 간에 텍스트를 둘러싼 각종 지식과 정보, 정서 등의 교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읽기”(백희정, 2023: 98)로 의미화된다.

전자의 사회적 독서가 텍스트 읽기를 토대로 사회 문제에 관해 탐구하는 ‘사회 변혁적’ 속성을 지닌다면, 후자의 사회적 독서는 텍스트를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이처럼 사회적 독서의 개념이 명료하게 합의되지 않은 까닭에, 그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실현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사회적 독서 관련 성취기준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독서의 개념 및 교육적 실천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공통국어1』, 『공통국어2』의 ‘읽기’ 영역에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 독서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공통국어2』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교육과정 및 선행 연구 검토

‘사회적 독서’라는 용어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처음 출현한 것은 2022 개정 시기이지만, 그것이 담지하는 의미망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독서’ 과목에서 ‘감상적 독해’ 교육

내용의 일부로 “사회적 공동체의 독서 행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글을 읽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87)를, ‘창조적 독해’ 교육 내용의 일부로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87)를 제시하였다.

이후 안부영(2012)에서 ‘사회적 읽기’ 개념이, 천경록(2014)에서 ‘사회적 독서’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독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처럼 읽기 목적에 방점을 두는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적 독서를 ‘사회 변혁적 독서’라고 규정한 어원(J. W. Irwin)의 이론에 주목한다(김은혜, 2024; 천경록, 2014 등).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 요소가 복잡하게 얹혀서 차별을 야기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논의와 관련지은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엄진주, 2024).

하지만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적 독서를 읽기 ‘목적’과 ‘방법’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현행 교육과정은 ‘읽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로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교육부, 2022 ㄱ: 8)를 제시하였다.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독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성원과의 소통’이라는 사회적 독서의 방법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처럼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공동체 가치 함양을 향한 국가적·사회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이 지향하는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등을 국어과의 성격에 맞게 반영하여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과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를 교육 목표로 설정한 것인데(노은희·정혜승·민병곤·서영진·최숙기·서수현 외, 2022:

31), 이 두 가지 목표는 각각 사회적 독서의 ‘방법’ 및 ‘목적’과 맞닿아 있다.

중학교 『국어』와 『공통국어2』의 ‘읽기’ 영역에 제시된 사회적 독서 관련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¹⁾

- [9국02-01] 읽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며 사회적 독서에 참여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교육부, 2022 ㄱ: 45)
- [10공국2-02-03]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부, 2022 ㄱ: 91)

이때 [9국02-01]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²⁾을 살펴보면, 사회적 독서의 ‘목적’보다는 ‘방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구성원들과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텍스트를 함께 읽는 ‘독서 토론’ 등의 활동이 중시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10공국2-02-03]에 관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를 지도할 때는 수업뿐 아니라 독서 동아리나 외부 독서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라디오,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등의 다양한 매체에 기반한 독서 토론 공간 등에

-
- 1) 『공통국어1』의 경우,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에 포함되어 있을 뿐 관련 성취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통국어1』 교과서에는 사회적 독서라는 용어가 드물게 나타난다.
 - 2)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의미를 형성해 간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성한 의미를 협력적으로 소통함에 따라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의 글을 선정하여 읽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필자의 의도 파악하기, 독서 토론을 통해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미 교환하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 발견하기,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하기 등을 학습한다(교육부, 2022 ㄱ: 45-46).”

서 다른 사람들과 독서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가정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사례나 차별 사례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독서는 독자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사회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육부, 2022-7: 92)³⁾

앞서 읽기 ‘목적’과 ‘방법’ 차원으로 나누어 사회적 독서의 의미를 정리한 바 있으나, 사실 이 두 가지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텍스트를 혼자 읽으면서 사회 문제에 관해 고민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할 때 사회적 독서의 목적을 수월하게 성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특정한 사회적 목적 없이 함께 읽기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과정에서 독서를 사회·문화적으로 맥락화하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의 많은 연구 역시 사회적 독서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안부영(2022)과 김은혜(2024)는 사회적 독서의 목적에 보다 방점을 두면서도 타인과 함께 읽는 방법적 측면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독자와 함께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독서/읽기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읽기를 통한 해석이 공적 논의로 이어”(안부영, 2022: 122)짐으로써 “세계와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김은혜, 2024: 77)할 때 사회적 독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3) 밑줄은 연구자가 한 것이다(이하 동일).

안부영(2022: 124)은 “사회적 읽기란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다중의 독자가 개별적 의미 구성을 토대로 텍스트가 문제 삼고 있는 사태나 현상 혹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담론가능체를 생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은혜(2024: 85)는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면담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텍스트를 매개로 타자와 소통 함으로써 자기와 세계를 변화 및 성장시키고, 삶과 연계된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게 하는 독서, 혹은 그러한 독서 문화”로 구체화했다.

한편, 서혁(2023: 22)은 사회적 독서를 “실제 혹은 가상 공간에서 독자(들)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공유·실천하는 독서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 때의 방점은 사회적 독서의 ‘목적’보다는 ‘방법’ 쪽에 놓이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텍스트와 사회문화적 공동체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강조한 것에서 사회적 독서의 목적 역시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혼자 텍스트를 읽는 개인적 독서에도 다양한 타자들과의 대화가 개입하므로 모든 독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독서 행위”(서혁, 2023: 23)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인화(2024: 181) 역시 사회적 독서로서의 함께 읽기를 “공동체가 공유한 관점에 따라 선택한 텍스트를 일정 기간 각자 읽은 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그 텍스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로 규정함으로써 방법의 측면에 더욱 주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독서의 방법에 치중하는 여타 연구들이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인적 독서와 구별되는 사회적 독서만의 차별점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연결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비문학 텍스트에 한정되어 논의되던 사회적 독서를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처럼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사회적 독서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사회적 독서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에(안부영, 2025: 109-110), 이 연구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통국어2』 교과서 9종에

사회적 독서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적 독서 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교육적 실천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III. '사회적 독서' 단원 구성 및 개념 제시 양상

1. 『공통국어2』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단원 구성 양상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국어2』 교과서 9종에 구현된 '사회적 독서' 관련 단원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공통국어2』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단원

교과서 (대표저자)	단원 구성	영역
동이출판 (최두호)	4. 생각을 키우는 독서 (1) 주제 통합적 읽기 (2) 사회적 독서와 발표	읽기 듣기·말하기
미래엔 (신유식)	5. 소통하고 참여하라 (프로젝트) (1) 매체 소통 문화와 공동 보고서 쓰기 (2) 사회적 독서 활동 발표하기	매체 쓰기 읽기 듣기·말하기
비상교육 (강호영)	1. 시야를 넓히는 말과 글 (1) 인공지능을 보는 다양한 관점 (2) 생각을 나누는 독서와 발표	읽기 듣기·말하기
비상교육 (박영민)	1. 나, 너, 우리가 만나는 길 (1) 문학의 해석과 생활화 (2)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문학 읽기 듣기·말하기
지학사 (김철희)	1. 생각을 펼치는 읽기와 쓰기 (1)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논증하는 글쓰기	읽기 쓰기

창비 (최원식)	5. 함께 읽고 쓰는 즐거움 (1) 기후 변화는 정말 위기인가요? (2) 함께 탐구하며 공동 보고서 쓰기	읽기 듣기·말하기 쓰기
천재 (김수학)	1. 읽고 나누는 기쁨 (1) 주체적으로 감상하기 (2) 매체 자료 평가하며 읽기 [한 권 읽기]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문학 읽기 매체
천재 (김종철)	3. 글로 읽는 세상, 세상을 움직이는 글 (1) 주제 통합적 읽기와 사회적 독서 (2) 논증하는 글 쓰기	읽기 쓰기
해냄에듀 (임광찬)	1. 세상을 밝히는 힘 (1) 말의 힘 (2) 힘 있는 글 (3) 함께 읽기의 힘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

먼저 단원명을 살펴보면, 교과서 9종 중 5종이 ‘사회적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외에 ‘생각을 나누는 독서’,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함께 읽기’ 등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사회적 독서의 목적보다는 방법이 부각되는 경향이 존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과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창비>는 소단원명에 ‘사회적 독서’ 관련 용어 대신 제재 텍스트의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소단원 구성의 경우, 사회적 독서 관련 성취기준인 [10공국 2-02-03]⁴⁾을 단독으로 초점화한 교과서도 존재했지만, 그것을 다른 성취기준과 엮어서 다루는 양상을 더 많이 살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발표하기 관련 성취기준인 [10공국2-01-01]⁵⁾이 특히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발표를 통해 사회적 독서의 결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
- 4) “[10공국2-02-03]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교육부, 2022 ㄱ: 91).”
- 5) “[10공국2-01-01] 청중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청중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한다(교육부, 2022 ㄱ: 90).”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강)〉처럼 소단원명에서부터 사회적 독서와 발표의 연계가 드러나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비상교육(박)〉과 〈창비〉 등도 포함된다. 한편 〈천재(김종철)〉는 주제 통합적 읽기 관련 성취기준인 [10공국 2-02-02]⁶⁾와 묶어서 소단원을 구성했다.

〈지학사〉, 〈천재(김수학)〉, 〈해냄에듀〉는 사회적 독서 관련 성취기준만으로 별도의 소단원을 마련했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교육과정상에 처음 도입된 사회적 독서에 대한 교육을 심층적으로 진행하기에 이점을 지닌다. 특히 〈천재(김수학)〉는 해당 소단원에 [한 권 읽기]라는 라벨을 붙임으로써 여타 단원과 차별성을 두었다. 이는 사회적 독서 관련 성취기준이 지닌 독특한 위상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기간의 수업으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형식의 특별한 소단원을 구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단원을 프로젝트성 단원으로 분류한 〈미래엔〉의 경우도 주목을 요한다.

마지막으로, 대단원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읽기, 쓰기, 듣기·말하기 등 읽기와 관련성이 큰 의사소통 영역의 성취기준과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었다. 주제 통합적 읽기(〈동아출판〉, 〈비상교육(강)〉, 〈지학사〉, 〈천재(김종철)〉), 논증하는 글 쓰기⁷⁾(〈지학사〉, 〈천재(김종철)〉, 〈해냄에듀〉), 공동 보고서 쓰기⁸⁾(〈미래엔〉, 〈창비〉),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⁹⁾(〈해냄에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미래엔〉과 〈천재(김수학)〉는 사회적 독서 관련 교육 내용을 매

-
- 6) “[10공국2-02-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나 자료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며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교육부, 2022 ㄱ: 91).”
 - 7) “[10공국2-03-02] 논증 요소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교육부, 2022 ㄱ: 93).”
 - 8) “[10공국2-03-03]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하여 복합양식 자료가 포함된 공동 보고서를 쓴다(교육부, 2022 ㄱ: 93).”
 - 9) “[10공국2-01-03] 사회적 소통 과정에서 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한다(교육부, 2022 ㄱ: 90).”

체 영역과 엮어서 구성하였다. 사회적 독서가 중요한 국어교육 현상으로 부상한 데에는 오늘날의 매체 환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접근은 의의를 지닌다. 또 〈비상교육〉과 〈천재(김수학)〉의 경우 ‘주체적인 해석’과 ‘문학의 생활화’¹⁰⁾를 강조하는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과 엮어서 단원을 구성하였다. 두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문학 읽기의 결과를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독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공통국어2』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개념 제시 양상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각 교과서가 사회적 독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9종의 사회적 독서 관련 단원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발췌한 후, 질적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MAXQDA를 활용하여 코딩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독서의 개념은 크게 ‘방법’과 ‘목적’의 측면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먼저 ‘방법’의 측면에서는 ‘함께 읽기’, ‘타인과의 소통(교류/상호작용)’, ‘생각 공유’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독서 동아리/모임’ 및 ‘매체’를 통한 사회적 독서의 구체적인 사례(실천 방안)가 제시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목적’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 통합’, ‘사회·문화의 유지 및 발전’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외에 ‘타인의 관점 인지’,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이해’, ‘사회 문제 인식’, ‘연대/협력’, ‘유대감’ 등의 키워드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독서의 방법 측면과 목적 측면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10) “[10공국2-05-02]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교육부, 2022.7: 95).”

를 지닌다.

이상의 키워드는 모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교과서가 교육과정상에 기술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회적 독서의 방법과 목적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독서의 방법에 방점을 두는 교과서에서 두드러졌다.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사회적 독서 활동이란 독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면서 지식을 공유·확장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일컬어요. 책을 읽고 그 감상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누리 소통망, 라디오, 온라인 독서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 활동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비상교육〉(박영민·박형우·가은아·권태현·박경희·백유진 외, 2025: 21)

물론 위 교과서는 학습 활동의 도움말에서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독자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독서 활동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사회·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독서 활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도서를 선정해 본다.”(박영민 외, 2025: 32)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읽기’의 방법이 어떻게 ‘사회 통합’과 ‘사회·문화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로 연결되는지의 문제가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독서의 ‘목적’에 방점을 두는 교과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왜 배울까]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지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먼저 독서를 하며 다양한 지식이

나 정보, 삶의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청중과 상호 작용하며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공동 보고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길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장비〉(최원식·권태윤·박연환·이삼남·이종호·정지영 외, 2025: 190)

위 교과서의 경우, 〈비상교육〉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독서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함께 읽기'라는 사회적 독서의 방법적 측면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는다. [소단원 마무리]¹¹⁾에 사회적 독서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문에는 텍스트를 둘러싼 소통에 참여하는 사회적 독서의 방법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독서의 방법과 목적을 긴밀하게 연결 지어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아래의 교과서에 주목을 요한다.

우리는 독서를 하고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독서 모임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면 독자 개인은 독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

11)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최원식 외, 2025: 203)

독서를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함.	→	독자 개인의 성장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 사회 문화의 유지·발전
--	---	--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사회적 독서 활동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함.	구성원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함.
독자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	

—〈지학사〉(김철희·남궁민·조형주·이승철·송소라·이민정, 2025: 12)

위 교과서는 사회적 독서의 방법과 목적을 모두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둘을 잘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함께 읽기’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이해’, ‘사회 문제 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 확장’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원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독서는 ‘함께 읽기’라는 방법의 측면과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며, 함께 읽기의 방법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추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사회적 독서란 ‘텍스트를 매개로 타인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읽기’로 정의할 수 있다.

IV. ‘사회적 독서’ 관련 제재 및 학습 활동 양상

1. 『공통국어2』 교과서의 제재 텍스트

이 절에서는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국어2』 교과서가

사회적 독서 관련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제재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교과서가 사회적 독서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표 2〉『공통국어2』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제재 텍스트

교과서	제재 텍스트(저자)	주제
동아출판 (최두호)	『지구를 위하는 마음』(김명철)	사회 문제 (생태·환경)
미래엔 (신유식)	-	-
비상교육 (강호영)	『공감의 반경』(장대익)	사회 문제 (갈등·편 가르기)
비상교육 (박영민)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박종하,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창의성
지학사 (김철희)	『별점 제도, 집단 지성의 힘』(김성태)	사회 문제 (별점 제도)
창비 (최원식)	『기후 변화는 정말 위기인가요?』(권승문·김세영,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	사회 문제 (생태·환경)
천재 (김수학)	『우리가 존엄한 이유』(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회 문제 (차별·인권)
천재 (김종철)	『‘활동가, 길잡이’ 네 번째 이야기』(독서동아리지원센터)	함께 읽기
해냄에듀 (임광찬)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장강명, 『책, 이게 뭐라고』)	함께 읽기

〈표 2〉에서 드러나듯이, 『공통국어2』 교과서 9종 중 5종이 사회 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텍스트를 제재로 삼고 있었다. 그중 생태·환경 문제에 관한 것이 2건으로,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¹²⁾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담

1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

아닌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차별 및 갈등에 관한 텍스트도 주목할 만하다. <천재(김수학)>는 장애 문제를 초점화하여 차별 및 인권에 관해 논한 텍스트를, <비상교육(강)>은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편 가르기'의 원인인 공감에 주목한 텍스트를 제재로 선정하였다. 전자의 텍스트가 저자가 몸소 경험한 장애 문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로 확장된다면, 후자는 처음부터 사회 문제에 거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4종의 경우, 사회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제재를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독서의 '목적'보다는 '방법'의 측면에 주목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중에서 <천재(김종철)>와 <해냄에듀>는 사회적 독서 자체에 관해 다룬 텍스트를 선정했다. '함께 읽기'라는 방법이 지니는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어과 교육과정상에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 요소가 '가치·태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사회적 독서의 장점과 효과를 학습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사회적 독서를 생활화·내면화하고 사회적 독서 문화를 형성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독서의 '목적'이 다소 희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한 한계는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창의성'이라는 일반적인 주제의 텍스트를 다룬 <비상교육(박)>과 사회적 독서 활동을 위한 제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미래엔>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학습자가 타인과 함께하는 독서 행위를 몸소 경험해 보도록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활동에 특별한 지향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독서의 목적이 성취되기 어렵다.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성취기준 [9국02-01]과 관련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은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의 글을 선정하여

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교육부, 2022 ㄴ: 4)."를 제시하고 있다.

읽기”(교육부, 2022 ㄱ: 45)를 중요한 학습 활동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의식을 촉발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재로 제공할 경우, 학습자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 읽음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독서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2. 학습 활동 구성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각 교과서가 사회적 독서 교육을 위해 어떠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공통국어2』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학습 활동 구성

교과서	학습 활동
동아출판 (최두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텍스트 내용 정리• (개별) 가상의 독서 동아리 대화 내용 정리 → 사회적 독서의 의의 정리• (개별) 가상의 발표 내용 및 전략 정리• (모둠) 함께 읽을 책이나 자료 선정 → 텍스트 읽은 후 읽은 내용을 공유• (모둠) 발표 준비 → 학급 발표 및 평가
미래엔 (신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의 비교• (개별/학급) 사회적 독서의 사례 및 가치 탐구• (모둠) 독서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개별) 선정한 책을 읽으면서 독서 일지 작성• (모둠) 독서 동아리 활동 수행 및 내용 기록• (개별)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의의 탐구 및 SNS에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의 사례 탐색• (개별 & 매체) SNS에 글 게시 → 댓글 작성• (모둠) 발표 준비 → 학급 발표 및 평가
비상교육 (강호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텍스트 내용 정리• (개별/학급)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기• (모둠) 갈등과 편 가로기 문제를 다룬 뉴스나 신문 기사 찾고 이야기 나누기• (모둠) 특정 사회 문제 선정 → 텍스트 읽기를 통해 그것에 관해 탐구 →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법 모색• (개별 & 매체) 해결 방안을 온라인 독서 토론 공간이나 SNS 독서 모임에 공유 → 댓글을 통해 소통• (개별/학급) 사회적 독서 활동의 소감 공유• (개별) 발표 준비 → 학급 발표 및 평가

비상교육 (박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텍스트 내용 정리 • [개별] 가상의 독서 모임에서 나눈 대화 내용 정리 • [개별/학급] 나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공유 • [개별/학급] 사회적 독서의 효과 탐구 및 공유 • [모둠] 독서 모임 주제 및 도서 선정 • [모둠] 도서를 읽고 대화한 내용 정리 • [학급&매체] 독서 모임 결과 공유(학급 누리집 등) • [개별] 발표 준비 → 학급 발표 및 평가
지학사 (김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제재에 대한 모둠별 독서 일지 작성 • [모둠] 별점 제도 관련 추가 자료 탐색 및 공유 → 문제에 관한 의견 공유 • [모둠] 별점 제도 관련 카드 뉴스 제작 및 공유 • [모둠] 사회적 독서 활동 소감 공유
창비 (최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텍스트 내용 정리 • [개별] 읽기를 통해 알게 된 점과 탐구할 점 작성 • [개별] 생태·환경 문제에 관한 책 찾아 읽기 • [개별&매체] 온라인 쌍방향 수업 플랫폼에 읽기 결과 공유 → 댓글 작성 • [모둠]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 모색 • [모둠] 발표 준비 → 학급 발표 및 평가
천재 (김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성한 질문에 대해 대화 • [개별] 독후감 작성 • [모둠] 독후감 공유 및 의견 작성 • [모둠] 함께 읽을 책에 대한 소개 자료 제작 • [학급] 책 소개 자료 전시 • [모둠] 함께 읽을 책 선정 • [개별] 책 읽으면서 독서 일지 작성 • [모둠] 질문 카드 생성·공유 → 3가지에 관해 대화 • [모둠] 결과 보고서(발표 자료) 제작 및 학급 발표 • [모둠] 사회적 독서 활동 소감 공유
천재 (김종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텍스트 내용 정리(함께 읽기의 장점) • [개별] 사회적 독서 참여 방법 모색 및 의의 탐구 • [모둠] 함께 읽을 주제 및 책 선정 • [개별] 책을 읽으면서 질문 생성 • [모둠] 책 대화 나누기 • [모둠&매체] 활동 결과 정리 → 매체 통해 공유 • [모둠] 사회적 독서 활동 소감 공유
해냄에듀 (임광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텍스트 내용 정리(함께 읽기의 장점) • [개별/학급] 사회적 독서의 효과에 관해 토의 • [개별] 자신이 참여할 사회적 독서 활동 탐색 • [개별] 사회적 독서 활동 실천 계획 수립 • [모둠] 독서 동아리 조직 → 함께 읽을 주제·책 선정 • [개별] 책을 읽으면서 독서 일지 작성 • [개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 생성 • [모둠] 질문 공유 및 함께 이야기할 질문 4개 선정 • [모둠] 선정한 질문을 바탕으로 대화 나누기 • [개별] 대화한 내용 점검 → 소감문 작성 • [개별&매체]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공유

1) 사회적 독서의 목적 측면

전체 9종 중 5종의 교과서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설계하였다. 〈비상교육(강)〉, 〈지학사〉, 〈창비〉, 〈천재(김수학)〉, 〈천재(김종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이 사회적 독서를 직접 실천할 때 사회 문제에 관한 텍스트를 선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중에서 〈지학사〉와 〈창비〉는 각각 제재 텍스트의 주제인 ‘별점 제도’와 ‘생태·환경’ 문제에 관한 텍스트를 탐색·선정하여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게끔 지도하였다.

그런데 〈비상교육(강)〉, 〈천재(김수학)〉, 〈천재(김종철)〉의 경우, 사회 문제에 관한 텍스트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구체적인 템크 주제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천재(김종철)〉가 “‘인권, 평화’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불평등, 기후 위기’ 등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김종철·서유경·안혁·이상일·박찬용·박혜영 외, 2025: 136)라는 도움말을 제공함으로써 다소 간접적인 방식을 취했다면, 〈비상교육(강)〉과 〈천재(김수학)〉는 본문 차원에서 사회적 독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2. 모둠을 구성하여 필자가 언급한 ‘갈등과 편 가르기’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모둠 구성원들과 독서를 하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자.

*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생기는 갈등 사례나 불평등 사례, 차별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1) 모둠 구성원들과 갈등과 편 가르기 문제가 드러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2) 모둠 구성원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사회 문제를 정하고, 그 문제를 정한 이유를 말해 보자.
- (3)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모둠에서 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 템크한 내용과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리해 보자.

—〈비상교육〉(강호영·신승은·이성수·강이욱·김미향·김태광 외, 2025: 29)

1. 모둠원들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해 보자.

(1) 다음을 참고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각자 한 권씩 고르고, 그 까닭을 써 보자.

찾아볼 만한 책

- 평화, 인권, 평등, 기후 정의 등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다룬 책
- 차별, 폭력, 사회 갈등, 환경 위기 등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사회 문제를 다룬 책

—〈천재〉(김수학·고은정·박의용·서우종·서준형·안미림 외, 2025: 48)

이와 같은 접근은 사회 문제에 관해 탐구한다는 사회적 독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교육적 설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학습자 주도성(student agency)’을 추동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행위주체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용어는 단순히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활동·수단 등을 선택한다는 개인의 인지적 차원을 넘어, 학습자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Vaughn, 2021/2023: 22, 28).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람·사건·환경에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책임감”(OECD, 2019: 34)이라는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학습자 주도성은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그 지향점을 공유한다.

그런 점에서 두 교과서가 수록한 제재 텍스트의 성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 다루면서도 특정 한 가지에 친착하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시각을 취한 제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그에 관한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도록 이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사한 사회 문제를 선택

한 학습자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재 텍스트가 부재했던 〈미래엔〉과 사회 문제와는 관련 없는 제재를 다룬 〈비상교육(박)〉 및 〈해냄에듀〉의 경우, 학생들이 사회적 독서를 직접 수행하는 학습 활동에서도 사회적 독서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 〈미래엔〉은 다른 대단원의 말미에 [다채롭게 떠나는 독서 여행] '3. 독서로 사회 문제 해결 경험하기'를 제시하였지만, 사회적 독서와는 별개의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방법이 긴밀히 통합되지 못한 것이다.

〈해냄에듀〉는 선행 소단원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데 반해, 사회적 독서에 해당하는 소단원에서는 특정한 방향성 없이 '함께 읽기'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대단원 '1. 세상을 밝히는 힘' 중 '(1) 말의 힘'에서 혐오 표현이, '(2) 힘 있는 글'에서 위기 청소년, 동물 실험, 난민 수용 등의 의제가 쟁점화된 만큼, '(3) 함께 읽기의 힘'에서도 사회적 문제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토의하도록 이끈다면 소단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독서의 교육적 효과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아출판〉의 경우, [이해하기]에 수록된 제재는 '생태'라는 특정한 사회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회적 독서를 경험해 보는 [활동하기]에서는 모둠원과 함께 읽을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 별다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¹³⁾ 생태에 관한 제재가 수록된 만큼, 그것을 읽은 후 직접 사회적 독서 활동을 실천하는 단계에서 생태 문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통해 더욱 심화된 탐구를 전개하도록 유도한다면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3) “모둠원의 관심사와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제의 책을 선정하여 읽는다.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권의 책이나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읽을 수도 있다.”(최두호·권미득·김현아·박원정·서민지·이민희 외, 2025: 190)라는 일반적인 내용의 도움말만을 제공하고 있다.

2) 사회적 독서의 방법 측면

9종의 『공통국어2』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는 방법을 교육적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동아출판〉과 〈비상교육(박)〉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가상의 사회적 독서 활동을 읽음으로써 사회적 독서의 방법과 의의를 이해하고, 이후에 그것을 적용하여 직접 사회적 독서를 실행해 보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예시문을 통해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적·절차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동시에 사회적 독서를 ‘가치·태도’ 차원에서 내면화하게끔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학습자들이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독서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기에 방법적 지식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천재(김수학)〉, 〈천재(김종철)〉, 〈해냄에듀〉의 경우 질문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독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표 3〉에 정리해 두었듯이, 〈천재(김수학)〉는 책을 읽으며 개별적으로 작성한 독서 일지를 참고하여 모둠원과 함께 이야기 나눌 질문을 생성한 후, 서로의 질문 카드를 공유하여 세 가지 질문을 선정하고 그것에 관해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천재(김종철)〉 역시 각자 만든 질문을 모둠원과 공유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때 ‘책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다음 방법에 따라 모둠원들과 책 대화를 나누어 보자.

- ① 모둠 친구들이 만든 질문을 모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어떤 순서로 대화를 나눌지 정한다.
- ② 대화를 진행할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할 친구를 정하고, 미리 정한 질문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 ③ 대화를 나눌 때에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질문한다.

— 〈천재〉(김종철 외, 2025: 137)

이와 같은 교육 방안은 사회적 독서에 낯선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위의 두 교과서는 각각 예시¹⁴⁾와 도움말¹⁵⁾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인·심화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독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질문을 생성하도록 촉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냄에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더욱 상세하게 단계화하여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5. 친구들과 함께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 보자.

- (1) 독서 일지에 작성한 질문과 아래 제시된 질문의 종류를 참고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질문 예시 생략)

- (2) 각자 만든 질문을 친구들과 공유한 후, 함께 이야기할 질문 4개를 선정해 적어 보자.

- * 모둠 질문을 선정하는 방법
- 모둠원 각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2개 정도 메모지에 쓴다.
 - 메모지를 한곳에 모은 후, 돌아가며 자신의 질문에 대해 설명한다.
 - 각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별표로 표시한다. 모둠원의 질문을 더 좋은 질문으로 바꾸어 제안할 수 있다.
 - 모둠원과 상의하여 모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결정한다.

6. 5-(2)에서 정한 질문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자.

-
- 14) “내가 만약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쪽에 있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책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김수학 외, 2025: 51)?”
- 15) “책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질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질문, 우리 공동체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질문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김종철 외, 2025: 136).”

* 대화를 나누는 방법

- 대화 전에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할 시간을 먼저 갖는다.
-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한 후, 미리 정한 질문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대화한다.
-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것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파악한다.
- 대화 내용을 녹음해둔다.

—〈해냄에듀〉(임광찬·강건우·강건후·강희수·권순보·김묘연 외, 2025: 36-37)

반면, 나머지 4종의 교과서는 사회적 독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텍스트에 관해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회적 독서에 친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가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비〉의 경우, 학습자로 하여금 각자 선정한 책을 개별적으로 읽은 후 읽기 결과를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공유하고 댓글로 소통하게끔 했다. 이처럼 발산적인 방식 역시 사회적 독서의 한 방향이 될 수 있겠으나, 소모임 차원에서 동일한 텍스트를 함께 읽고 그에 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에 선행되었을 때 교육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온라인 쌍방향 수업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한 점은 고무적인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회적 독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교과서가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독서 활동을 다양하게 구안하였지만, 추상적인 제안에 그치거나¹⁶⁾ 실현 가능성에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예컨대, 〈비상교육(강)〉은 조별 독서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리하고, 온라인 독서 토론 공간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독서 모임에 공유”(강호영 외, 2025: 30)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16) “(3)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적 독서 활동의 결과를 공유해 보자. / 독서 감상문, 서평 외에도 책 소개 영상이나 카드 뉴스 등을 만들어 사회적 독서 활동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김종철 외, 2025: 138).”

처럼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사회적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지만, 일반적인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여러 학습 활동 중 한 가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지학사〉는 ‘온라인 독서 모임 참여하기’를 별도의 [단원 통합 활동]에 제시함으로써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장기적인 학습 활동으로 상정하고 있다.¹⁷⁾ 다만 학습자들이 참여할 만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찾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부재한 실정이다.

〈미래엔〉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이나 작가를 해시태그로 적고 자신의 생각을 써서 올”린 후, “같은 해시태그를 쓴 게시물을 찾아 댓글을 쓰면서 자유롭게 소통”(신유식·전여경·공규택·한민수·윤인희·최희윤 외, 2025: 190)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사용에 능숙한 학습자들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판단되나, 앞서 진행한 사회적 독서 활동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둠원과 대면으로 진행한 독서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SNS 등에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아출판〉과 〈천재(김수학)〉의 경우,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독서 활동을 구현하지 않았다.¹⁸⁾ 모둠별로 사회적 독서 활동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한 것인데, 매체를 통해 그러한 발표 자료를 학교나 지역, 국가 차원으로 확산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적 독서를 통

17) “1. 자신이 참여할 온라인 독서 모임을 탐색해 보자. / 2. 독서 모임 구성원들에게 함께 읽을 책을 추천하는 글을 써 보자. / 3. 독서 모임 구성원들이 추천한 책들 중 읽을 책을 선정하고 읽기 계획을 세워 보자. / 4.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한 소감을 작성해 보고, 앞으로의 독서 모임 활동 계획을 세워 보자(김철희 외, 2025: 38).”

18) 〈천재(김수학)〉는 모둠별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에 앞서 책 소개 자료를 공유하는 ‘우리 반 추천 도서 전시회’ 활동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김수학 외, 2025: 49), 학습자들이 사회적 독서를 직접 실천하는 활동 차원에서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실천(praxis)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V. 맷음말

이 글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등장한 ‘사회적 독서’의 개념과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9종의 『공통국어2』 교과서에 사회적 독서 관련 성취기준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사회적 독서 단원의 구성 양상을 개괄한 후 각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독서는 ‘함께 읽기’라는 방법 측면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측면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어떤 글을 읽고 동료 학습자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은 ‘사회적 독서’라는 명명 없이도 그간의 국어교육에서 종종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사회적 독서가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호작용적 읽기’의 차원에 그치기보다는 ‘사회변혁적 읽기’로서의 성격까지 충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홀로 텍스트를 읽어나갈 때보다 타인과 교류·협력할 때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적 독서를 ‘텍스트를 매개로 타인과의 소통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읽기’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독서 관련 제재 및 학습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재 텍스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크게 사회 문제에 관한 글을 수록한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글을 수록한 교과서로 나뉘는데, 학습자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 읽음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독서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촉발할 수 있는 텍스

트를 제재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의 구현 양상은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방법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읽기 ‘목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구안한 교과서와 특별한 읽기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학습 활동을 구안한 교과서로 양분되었다. 이중에서 사회 문제에 관해 다루는 글을 사회적 독서 활동을 수행할 텍스트로 선정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구체적인 탐구 주제는 학습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 방안으로 평가된다. 자신의 삶이나 관심사와 밀접한 사회 문제에 관해 학습할 때 그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 ‘방법’ 측면에서는 사회적 독서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분석했는데, 가상의 사회적 독서 활동을 읽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적 독서의 방법을 체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과, 질문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단계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살릴 수 있었다. 반면 별도의 방법적 지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회적 독서를 진행하도록 한 교과서도 존재하였다.

한편,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독서 활동의 결과를 교실 차원을 넘어 학교·지역·국가 등의 차원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업 방식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형식이 적합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독서 관련 내용이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활동은 대부분 비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독서는 비문학 텍스트에만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몇몇 교과서는 사회적 독서 활동의 예시로 문학 텍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¹⁹⁾ 따라서 텍스트 장르의 경계 넘기가

19) 〈비상교육〉(강)은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를, 〈해냄에듀〉는 조제 마우루 드 바스콘셀루스

요청된다. 비문학 텍스트에 한정된 사회적 독서 관련 연구와 비교했을 때,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토론·토의’ 혹은 ‘해석 소통’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이미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다만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를 사회적 관점에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 간의 엮어 읽기가 적극 권장된다.

* 본 논문은 2025.01.31. 투고되었으며, 2025.02.11. 심사가 시작되어 2025.03.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예시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호영·신승은·이성수·강이욱·김미향·김태광·박유미·배기연·이승현·임승기·장수미(2025),『공통국어2』, 과천: 비상교육.
- 교육부(2022 ㄱ),『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ㄴ),『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국어과 교육과정(제2007-79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수학·고은정·박의용·서우종·서준형·안미림·이세영·이지은·정지민·최서희(2025),『공통국어2』, 서울: 천재교과서.
- 김은혜(2024),「독서 교육을 위한 사회적 독서의 개념 연구: 국어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59(1), 71-96.
- 김종철·서유경·안혁·이상일·박찬용·박혜영·유성주·김태경·고범혜·박인규·박무근(2025),『공통국어2』, 서울: 천재교과서.
- 김철희·남궁민·조형주·이승철·송소라·이민정(2025),『공통국어2』, 서울: 지학사.
- 노은희·정혜승·민병곤·서영진·최숙기·서수현·남가영·김정우·옥현진·최소영·박종임·김현정·박혜영·정진석·조재윤·가은아·김종윤·이경남·김광희·김정은·김희동·문해원·박유란·나혜정·서규창·오윤주·장은주·정형근·김잔디·김현숙·박현진·배현진·이귀영·이지나·이지은·한상아(2022),『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세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민·박형우·가은아·권태현·박경희·백유진·서지영·윤금준·이은정·장미·조성만·조효민·한준휘·황상현(2025),『공통국어2』, 과천: 비상교육.
- 백희정(2023),「사회적 독서 공간으로서 '북튜브'의 활용 가능성과 읽기 교육 방향 탐색」,『한국초등국어교육』77, 95-128.
- 서혁(2023),「독서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독서 교육: 독서 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대응을 중심으로」,『독서연구』68, 9-33.
- 신유식·전여경·공규태·한민수·윤인희·최희윤·호지은·황재진·김면서·김정은(2025),『공통국어2』, 서울: 미래엔.
- 안부영(2012),『사회적 읽기 주체 형성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부영(2022),『변혁적 역량 함양을 위한 읽기 교육 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읽기』,『새국어교육』133, 109-135.
- 안부영(2025),『2022 개정 국어과 '읽기'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독서연구』74, 95-122.
- 엄진주(2024),『교차성에 바탕한 사회적 리터러시 개념 모색: 동시대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사회적 독서 양상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85, 105-136.
- 이인화(2024),『사회적 독서로서 '함께 읽기'의 사례 연구: 문학 텍스트 함께 읽기의 대화 분석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207, 175-213.
- 임광찬·강건우·강건후·강희수·권순보·김묘연·김민혁·김병국·김선산·김지은·김형태·

- 김형훈·민지훈·박무용·박정현·박현진·서정윤·안용순·옹기현·원혜령·유정진·이귀영·이연화·이현정·이현주·임명희·장애경·전현철·현윤진(2025),『공통국어2』, 서울: 해냄에듀.
- 천경록(2014),『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새국어교육』101, 7-35.
- 최두호·권미득·김현아·박원정·서민지·이민희·하성욱·한지훈(2025),『공통국어2』, 서울: 동아출판.
- 최원식·권태윤·박연환·이삼남·이종호·정지영·최형용·곽기영·김승정·오연경·이종은·임요환·최윤영(2025),『공통국어2』, 서울: 창비.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Paris: OECD.
- Vaughn, M. (2023),『교사와 함께 성장하는 학생 주도성: 자기주도적 학습을 넘어 학생 행위주체성으로』, 김영민 외(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21).

국어 교과서의 ‘사회적 독서’ 구현 양상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국어2』 교과서를 중심으로

엄진주

이 글은 2022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한 ‘사회적 독서’의 개념 및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통국어2』 교과서 9종을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적 독서의 개념을 비교한 결과, ‘함께 읽기’라는 방법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 독서란 ‘텍스트를 매개로 타인과의 소통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읽기’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적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촉발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재로 삼는 것이 이상적임을 지적했다. ‘목적’ 측면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해 다루는 텍스트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구체적인 탐구 주제는 학습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의 학습 활동이, ‘방법’ 측면에서는 질문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단계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의 학습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독서의 범위를 비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사회적 독서, 공통국어, 교과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교육

ABSTRACT

Aspects of “social reading” implementation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 Focusing on 『Common Korean 2』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Eom Jinju

This study analyzed nine textbooks of 『Common Korean Language 2』 to concretize the concept and educational plan of “social reading,” which introduced in the 2022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ocial reading should fulfill both its method and purpose. Social reading can be defined as “reading that understands various perspectives and values by participating in communication with others through text, and seeks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To achieve the purpose and method of social reading, it is essential to provide texts that foster social awareness. Regarding the purpose, learning activities that encourage students to select texts addressing social issues while allowing for autonomy in choosing specific topics are effective. Regarding the method, learning activities that employ question-based approaches with step-by-step guidance are beneficial. Additionally, refining teaching methods that utilize digital media is crucial, and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social reading to include both literary and non-literary texts.

KEYWORDS Social Reading, Common Korean Language, Textbook, 2022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Korean Education